

① 개요

이 전설은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며,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지혜를 알려준다.

② 내용

오랜 옛날 부잣집 아들이 서울에 가서 태학관을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왔다. 부친이 서당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했다. 그가 선생님을 찾아갔는데, 마침 한 여인이 문방사우를 들고 와서는 시집 식구들의 비문을 지어달라고 청했다.

선생님은 제자에게 비문 짓기를 권하여 비문을 지었는데 그 여인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했다. 그러자 할 수 없이 훈장이 직접 비문을 지어주니 여인은 흡족해하고 돌아갔다. 이 광경을 부친에게 이야기하자, 부친은 아들에게 사람은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겸손해야 하고,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.

③ 특징

사람의 됨됨이를 가르치는데는 부모와 스승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.

④ 핵심어

겸손, 제자, 소학교, 태학관, 성균관, 여자, 선생님, 아버님, 비문, 부인

⑤ 원전 서지사항

겸손을 배운 제자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

⑥ 관련 자료

겸손해서 얻은 쌀(오성찬, 《제주의 마을 고성리》, 도서출판 반석, 2002)